



# 스토리 라인

## 고대

자신의 창조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우주함선까지 감염시킨 헬민스.

자신의 자손을 늘려나가며 함선에 탑재된 게이트를 활용, 은하계를 하나하나 집어삼켜갔다.

오랜 시간이 지나 헬민스 내부의 중간 지휘를 담당하는 오버시어 중 변이 개체가 생겨났다.

에인션트 원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야하는 헬민스가 독자적인 사고와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곧 에인션트 원과의 의식 링크를 끊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나갔다. 곧 이어 자신만의 목적을 갖게 된 넥시스는 자신만을 따르는 세력과 에인션트 원을 새로 창조해내어 그를 통해 헬민스라는 종족 전체를 자신의 휘하에 두겠다는 야망을 실현할 계획을 준비해갔다.

## 15년 전

평화로운 실바니아의 한 구석에 위치한 스피티아에 정체 불명의 게이트가 생성

실바니아의 정보 기관보다 한 발 앞서 이를 파악한 헌터 협회가 소규모의 기술자와 경호 인원을 편성하여 게이트를 조사하러 감.

게이트 내부에서 안정성 테스트 중인 오버시어는 게이트를 건너온 인간 집단을 발견.

헬민스에게 처절하게 당하던 헌터 집단. 하지만 니콜라이는 노련하게 그들의 틈새를 노려 차례차례 쓰러뜨린다.

이후, 노쇠한 에인션트 원이 등장. 이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였기에 임시로 니콜라이를 숙주로 삼기로 결정. 니콜라이의 의사는 중요치 않았다.

에인션트 원을 계승 받은 니콜라이.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게이트의 폐쇄를 명령, 헬민스를 유폐하였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망쳐와 변절 개체인 넥시스를 만난 피터 교수.

피터는 그들의 강인한 생명 의지를 보고서 죽음을 앞두었다는 공포가 아닌, 탐구심으로부터 온 희열만을 느낄 뿐이었다. 넥시스의 거래 제의. 그것은 분명 거래가 아닌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자신 또한 헬민스의 일족이 되어 그들과 함께 한다면 자신의 지식욕을 끝없이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니콜라이가 게이트를 닫기 직전, 헬민스의 핵심 DNA 구조를 넥시스로부터 받은 그는 곧바로 헬민스를 연구하였고, 그는 인류를 헬민스에 최적화 시킬 수 있는 혈청을 개발해

냈다.

곧이어 피터 교수는 고아원에서 5살의 아이를 데려와 자신이 개발한 혈청을 주입하였다.

에이든 스틸러. 자신이 다음 넥시스를 만나기 전까지 성장시켜야 할 새로운 에인션트 원의 숙주였다.

---

## 튜토리얼

최초로 헬민스와 조우로부터 15년이 흐른 시점, 그들은 다시 실바니아를 침공해왔고 국가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실바니아를 발전시켰던 기술의 정수가 담긴 세레니아부터, 신 도시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네오스 구획까지. 헬민스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실바니아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무너진 건물로부터 추락하던 파편에 의해 기절해버린 에이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헌터 협회에 옮겨진 상태였다. 자신의 양아버지인 피터 스틸러는 에이든을 맡긴 후로 행방불명 되었으며, 자신을 맡게 된 아리엘. 자신의 팀원인 존, 데이비드와 함께 자신과 활동하라는 제의를 받게 된다. 행방불명된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에이든은 이 제안을 수락하였다. 에이든은 이윽고 헌터 협회 내의 훈련을 거쳐 신입 헌터의 계급을 배정 받는다.

## 챕터 1

헌터 협회 내부의 여러 임무를 수행함. 플레이어가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챕터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주로 진행. 피터 교수와 마이클 임시 협회장의 떡밥이 서서히 보여줌

## 챕터 2

임무 수행 중 우연히 다른 오버시어 개체를 발견. 해당 개체로부터 인간과 헬민스가 근본적으로 서로의 기술을 훔치며 강해지고, 다시 서로를 죽여가는 이 상황에 의문을 제기. 평소 인류를 위해 싸우던 에이든에게 가치관에 혼란을 주는 장면.

헌터 협회를 경계하는 정부 기관의 압박이 시작된다.

## 챕터 3

넥시스를 처치하기 위해 배정된 게이트로 나섬

넥시스는 그런 에이든을 숙주로 삼기 위해 덮치고, 오랜 접점 끝에 넥시스를 무력화하였다.

하지만 방심하고 있던 그들의 뒤로 인류를 배반한 피터 교수가 에이든을 덮쳤다.

찰나의 순간. 넥시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직전.

무언가가 피터 교수를 낚아채어 던졌다.

그 정체는 에인션트 원. 그는 이미 넥시스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진정 자신의 계승자를 찾아내기 위해 넥시스를 내버려두었던 것이다.

넥시스가 에인션트 원에게 사망한 후, 에이든을 잡아먹으려고 하나 내면의 니콜라이가 펼쳐 내어 게이트 밖으로 추방. 후 니콜라이로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앗아온 에인션트 원을 상대하기 위해 에이든은 다시 한번 헬민스가 몰려오는 게이트로 향한다.

## 챕터 4

본격적으로 헬민스화 된 함선을 뛰어다니며 에인션트 원을 상대하러 가는 에이든. 헌터 협회를 압박해오는 정부 기관의 뿌리치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해온 동료들의 희생을 뒤로 하고 함선의 중심지까지 나아간다. 압도적인 무력의 에인션트 원은 버거웠지만, 에이든은 끝내 자신의 의지를 힘으로서 증명해낸다.

에인션트 원의 패배, 하지만 그가 에이든에게 속삭인 단 한마디.

너의 힘은 헬민스에 어울린다. 너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여기서 에이든은 선택지의 기로에 놓인다.

## 희생

오랫동안 온 은하계를 헤집어 온 에인션트 원의 생명을 끝장낸 에이든. 주인을 잃은 헬민스 개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곧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존. 함선 내부의 경계를 유지하던 개체와 더욱 성장이 필요한 개체들 할 것 없이, 게이트로 뛰쳐나가려 하는 헬민스들. 급하게 게이트를 닫고자 했던 에이든과 아리엘이었지만 게이트의 작동은 오로지 에인션트 원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아니, 단 한가지 방법만이 남아있었다. 함선의 파괴. 함선의 기능을 정지 시키면 게이트와 함께 이 지긋지긋한 헬민스들을 단번에 숙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에이든은 아리엘에게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헬민스의 개체 최대한 저지할 것을 부탁하며 자신은 함선의 엔진부로 나아갔다. 이윽고 헬민스에 감염된 채 오랜 시간동안 우주를 떠돌던 이 가없는 함선의 엔진부에 도착한 에이든. 그는 이 끔찍한 악몽에 안식을 선사하겠다 결심하며 플라즈마 수류탄을 던졌다. 내부로부터 강력한 폭발압이 터져나왔고, 이는 게이트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는 아리엘에게 자세를 잡을 시간을 따워 주지 않았다. 그렇게 게이트와 함께 헬민스의 침공을 종결시킨 에이든. 아리엘은 망연자실한채 헌터 협회의 수송 드론에 이끌려 갈 뿐이었다.

## 계승

지금까지 인간들의 더러운 면들을 지켜봐오며 인류에 환멸을 느껴오던 에이든.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에인션트 원을 계승한다.

경악하는 아리엘을 뒤로 하며 헬민스의 수장을 이어 받은 에이든.

그것은 진정 경이로운 것이었으며 혼잡한 자신의 정신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짊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에인션트 원에게 맡기는 것으로 영면에 들 수 있을 것이었다.